

# True Peace

天國9年  
天曆 7

2021년 양력 8월

하늘부모님성회

Peace Festival  
of Heavenly Parents





# 행복이란 잃어버린 하늘부모님을 찾는 것

윤영호 세계본부장



하늘부모님의 이상향인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창조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하신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일평생 탕감복귀노정을 걸으시며 모든 만남을 극복해나오셨습니다. 특히 천일국 기원절 이후 천일국의 실체적 안착을 위한 7년 노정을 통해 7개국 이상 국가복귀와 7개 종단 복귀를 승리하시어 신통일세계를 개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적 기반 위에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및 천주성흔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늘 앞에 봉헌하시며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고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하여 새로운 7년 노정을 출발하시며 하늘부모님성회를 선포하시고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8주년을 봉헌하셨습니다. 오직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과의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 사생결단 전력투구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투입하여 오신 독생녀 참어머님을 모시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한 새로운 7년 노정 출발을 천명하시고 하늘부모님성회의 귀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늘부모님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자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애원으로 불러주시고,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평화는 모든 인류가 꿈꿔왔던 공통된 이상입니다. 개인의 평화, 가정의 평화, 종족의 평화, 국가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국경, 인종, 종교, 문화를 넘어 모두가 평화를 염원하지만 불행히도 참다운 평화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그 이유를 인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모시고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형제간에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형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평화축제는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님께서 열어주신 축제와 축복의 장입니다. 참어머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327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부모를 잃어버린 인류가 6천년 만에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런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2027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평화 축제를 통해 하늘부모님 성회의 깃발아래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모심으로써 전 인류가 천복을 받는 평화애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CONTENTS



04

### 권두언

#### 02 행복이란

잃어버린 하늘부모님을 찾는 것  
윤영호 세계본부장

#### 제2회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

#### 당신은 기쁨입니다

#### 효정증거 1 \_\_ 평화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11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는  
참어머님

조명철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 효정증거 2 \_\_ 하늘부모님은 누구인가

13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수만 KCLC 공동의장

#### 15 종단지도자들의 효정 증거

#### 효정증거 3 \_\_ 나는 누구인가

18 세상에 참된 기쁨을 전하는 삶  
야마시타 루미코

### 현장특집

#### 20 효정담회

윤영호 세계본부장

####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열다

22 저명한 지도자들의 연설을 통한  
세계평화정상연합의 가치

### 참부모님 말씀

#### 04 참부모는 인류의 참시조

#### 08 신통일일본을 향해

박차를 가해 나가자  
신일본 제3지구 희망전진예배 말씀



10



08

### INTERVIEW

27 축복가정에서 천보가정으로  
길영환 천보교육원장

#### 하늘부모님성회 신한국특별대륙

#### 5개 지구 평화축제

#### 환영사 및 말씀

31 신경인국 주진태 회장

32 신경원국 황보군 회장

33 신충청국 유경득 회장

34 신전라국 이상재 회장

35 신경상국 박영배 회장

#### 효정증거 \_\_ 나는 누구인가

38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임재식, 조혜경 가정

40 11명의 자녀를 둔 국제가정  
신승한, 마에다히로에 가정

### INTERVIEW

42 짐 로저스,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다



# 참부모는 인류의 참시조

## 참부모는 완성한 아담 해와

하나님은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류의 시조로 지은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대상이다. 인류는 오직 한 쌍의 시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 1남1녀 이외의 또 다른 참사랑의 가닥을 만들 수 없다. 만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절대사랑을 통해 완성하여 선한 자손을 번성하였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종적인 무형의 참부모로 모시고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지상의 횡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는 이상가정이 실현되었을 것이다. 참가정을 근원으로 하여 번성한 아담과

해와 일족이 민족과 세계로 번창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3대축복이 완성된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 세계가 곧 하나님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신 이상천국이다.

하나님이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합해 계시다는 것은 아담 해와를 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되어 아담 해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체와 대상인 사람, 즉 완

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중심삼고 비로소 거기에서 아들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도 인간이 창조했다는 결론의 자리에 세워 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부부가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태어나는 아들딸은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 놓고 기뻐하시던 기쁨의 위업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들딸을 낳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주셨

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께 갖고 있는 전체를 사랑하는 아들딸의 입장에 있는 인간이 몽땅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실체를 쓴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한 존재가 인류의 선한 시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몸과 하나된 가운데서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발동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고 또 돌아 완전히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자를 뿌렸다면 그러한 종자의 열매가 맺히게 되므로 그 씨는 아무리 쪼개어 보아도 그러한 내용을 갖춘 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뜯어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모셔 들여서 종자를 개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같이하기 위해

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무형의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의 실체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심 실체로 등장시키는 것이 인류의 선한 조상 참부모입니다.

아담 해와는 참부모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기 때문에 가정의 왕이요 왕후입니다. 그 아들딸은 미래의 왕이 되고 왕후도 될 수 있는 후계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볼 때에 할아버지는 하나님 왕권을 우리 집안에 옮겨 준 자리요, 어머니 아버지는 만국에 벌어질 가정들을 대표한 가정의 왕입니다. 본래 가정의 왕입니다. 그다음에 아들딸은 미래의 왕손으로서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 왕녀의 자리입니다.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경륜하고 하나님이 창조이상으로 세우고

자 했던 인류의 창조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아무리 잘나고 호강하는 사람, 천하를 다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타락한 조상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제일 원통한 일입니다. 타락한 시조를 가진 인류는 사탄 지옥을 향하여 맹진하고 있으니, 이것을 가로막고 창조상으로 와서 참자녀로 품어 줄 수 있는 본연의 주인, 본연의 부모를 찾아 헤매어 나오는 것이 인류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천년 역사를 통해 복귀의 도상을 가고 또 가서 타락 전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는 인류의 창조상입니다. 참아버지 참어머니입니다. 몸을 쓴 인류의 참부모입니다. 그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가 사탄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참부모님



공인으로서, 참부모님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다.

지 않고 본연의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선남선녀로서 성례식을 치르고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다면 만물은 아담 해와와 화동하면서 즐거이 그 가정에 필요한 물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인류의 참부모가 되고, 인류의 표본적인 참부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참다운 자녀가 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정의 주인도 하나요 사랑의 주인도 하나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타락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벌어졌기에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복귀의 목적은 아담 가정 복귀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나라를 찾기 전에, 민족

과 교회를 찾기 전에 당신의 상대를 찾고 한 중심가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이상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참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참가정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활해 오던 가정과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이상적인 참가정을 찾지 못하면 이상적인 나라도 세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본연의 참된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할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구원의 목표가 아니고 참가정이 구원의 기본단위가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해와는 참사랑에 의한 이상적인 참부부가 되고 나아가 참부모가 되어 그 후손과 전 인류의 참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참부모로 하여 번성된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어 아담문화권의 평화세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역사는 슬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잃어버린 것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를 잃어버리면 그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담 해와의 일족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 일족이 확대되어서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을 것이고, 하나의 세계로 확대되었을 것인데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해와를 잃어버림으로써 하늘나라의 왕권을 중심삼은 그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민족을 잃어버렸고, 하늘나라의 종족을 잃어버렸으며, 하늘나라의 가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남자 여자, 독생자 독생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복귀섭리역사는 이것을 되찾는 역사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번성하여 오늘날 수십억의 인류가 전부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가정적으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류는 참된 조상을 못 가졌고 참된 후손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된 가정·민족·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참된 뿌리를 찾아가야 되고, 참된 가정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섭리를 통해 소망의 세계, 참된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 통일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추구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개인적인 중심,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중심을 가르쳐 줌으로써 전 인류를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자는 것이 섭리역사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가정을 세우는 공동의 구원의 사명에서 기쁨을 찾으셨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적으로 망상적인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을 발판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신부를 맞이해서 인간조상이 6천년 전에 인류의 창조상이 되지 못하고 거짓 조상이 됨으로써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될 수 있는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완전한 남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할 수 있는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완전한 여성이 역사시대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때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는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사랑받던 그 이상의 자리요, 아담 해와한테 축복해 주시던 그 이상의 자리입니다. 지상에서 그런

기점이 생겨나야 사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인간시조 아담 해와가 그런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천사장은 사탄이 되지 않고 완전한 종의 자리에서 인간을 시봉하는 입장에 섰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원칙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잃어버린 인류는 고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인류의 참된 부모가 이 땅 위에 나타나야 됩니다.

본래의 아담은 개인이자 가정의 중심이요 국가의 중심이요 세계의 중심입니다. 문화라는 것도 아담 문화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이 시작되고 모든 인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은 인연의 역사도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인류의 참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과 참된 사회·민족·국가·세계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적 사상이 어느 때에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소망의 세계를 미래에 두고 바라보고 나왔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닦아진 그 사상을 중심삼고 그것을 본떠서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현재·미래의 중심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나라를 중심삼고 설정됩니다. 그 나라가 성립되면 그 나라의 문화는 영영 스쳐 지나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생생히 살아남고 문화적 원천으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통일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ㄷ

본 말씀은 참부모경 제1편 1장 1절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신통일일본을 향해 박차를 가해 나가자

신일본 제3지구 희망전진예배 말씀  
천일국 9년 천력 5월 11일(양 2021.6.20) | 천정궁 및 신일본 제3지구 온라인 비대면

나는 오늘 특별히 3지구 대회에서 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동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잔잔한 시냇가에 있는 남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봅니다. “뽕당뽕당 돌을 던지자”, 잔잔한 물 가운데 돌을 던지게 되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이 거둡하게 되면 더 크고 넓게 퍼져 갑니다. 남동생은 건너편에서 나물을 씻는 누나를 향해 그 파문이 펼쳐 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던진 돌맹이로 파문이 일어나 건너편에 있는 누나의 손등을 간지러 준다는 동요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과 하나 된 모습입니까! 일본의 3지구는 1지구와 5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3지구에 있는 여러분의 정성과 결단이 시

냇가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같이 전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무궁화 정신으로 일본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라

2차대전이 끝날 때에 일본은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으로 말미암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일본은 포장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본받았습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게 될 때에는 걸의 포장이 아름다울수록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선물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그 포장을 뜯어야 합

니다. 선물의 가치는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일본이 더 이상 역사의 진실, 섭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포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장은 언제인가는 다 벗겨지게 마련입니다.

오늘날의 일본이 있게 된 것은, 하늘 섭리의 완성을 위한 독생녀를 탄생시킨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이 있었기에 일본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참부모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참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부도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인류는 항상 평화로운 세계를 염원해 나왔으나 사실 그런 세계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전쟁, 갈등과 같이 인류를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입니다.

인간은 창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뜻에 맞게 생활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평화로운 세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중심한 세계로 6천년이 흘러나왔는데 이제 참부모에게 섭리의 완성을 볼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소원하고 꿈에 그리던 참주인, 우리 인류의 부모가 되시는 하늘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이 참부모에 의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옛날의 잘못된 관습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일본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세계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벗겨주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분이 누구입니까? 참부모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포장에 연연하지 말고, 진실을 바로 알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여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앞에 일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위정자와 일본 백성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축복은 없게 됩니다. 일본의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부모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부모를 모시는 운동을 해야만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지구는 일본 전체를 교육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무궁화 정신으로, 일편단심 정신으로 참부모를 알리고 하나 되는 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데 중책을 맡은 해와국이 되며, 어머니 나라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는데 그 속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고평다 지구장, 축복가정과 평화대사, 오늘 대회에 참석한 모든 가정들의 소원은 '신통일일본'입니다. 거기에 박차를 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2회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 \_ 당신은 기쁨입니다

# Peace Festival

제2회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

당신은 기쁨입니다

지금도 그 기쁨  
받고 있지요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는 참어머님

조명철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명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울보 국회의원! 뭔가 말을 하라고 하면 감격에 북받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저를 이런 영광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성회 회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하는 것이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저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고향이 평양시 만경대 구역 아닙니까? 제 고향이 바로 만경대 구역입니다. 저의 부친은 북한 정부의 건설상을 오랫동안 역임한 건축분야의 전문가셨습니다. 북한의 주요 건축물과 공장들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북한에 최고위직 자녀들만 다니는 평양 남산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또 박사원을 졸업했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부 교수로 임명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90년대 중국인민대학에 교환교수로 나가있던 중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경제학자였던 전공을 살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통일국제협력팀장,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일본에서는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국제지역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신임과 배려에 의해서 최고위직 공무원인 통일교육원장(21대)으로도 일했습니다. 이후 그 사랑이 끝나지 않고 그 신임 속에서 국회의원(제19대)으로도 일했고 지금은 선문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유년시절, 청년시절,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도 늙어서도 두



분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두 분의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른두 살에 처음으로 문선명 선생님, 한학자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그때 저의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평양에서 김일성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저희 부모님이 건설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평양을 다녀가신 이후에 김일성 주석이 장관들을 모아 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하면 그런 용기와 말씀을 하실까? 이게 첫째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제3국에서 살 때 북한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양에 살 때 북한 체제가 잘못되고 사상과 이념이 잘



못되었다고 최고위층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수많은 대통령, 정치인, 기업인들, 심지어 NGO를 한다는 사람들까지, 평양에 오면 마음이 쪼그라들어 비판은커녕 찬양하다 돌아오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공산주의 잘못됐다, 주체사상 잘못됐다.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북한의 그것도 최고위층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당당히 말씀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고 담대한 분일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 가서 말 한번 잘못해서, 선전포스터 하나 만졌다고 해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 기업인, 심지어 미국 시민들까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평양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가보십시오. 입도 뻥끗하기 힘듭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모두가 북한을 비판하고 욕할 때 부분의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이려고 있을 때, 문 총재님께서서는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가자는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개된 사업들을 보면 금강산 사업, 그리고 북한에 가면 제일 없는 게 뭘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사업, 호텔 사업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평화와 번영! 그것이 사랑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학자 선생님을 처음 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평양시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쁘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깨끗하고 맑고, 광채 나는 그 용상!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면 저렇게 티 없는 맑은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껏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주민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모습 보면서 말은 안 하시지만 얼굴로 말씀하시는 그 분! 제가 이 두 분을 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무얼 하신다 하면 꼭 행사에 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광팬이라고 할까요?

문선명 선생님이 가셨을 때 앞길에 막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의 시, '님의 침묵'이라는 시도 몇 번을 읽었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제가 외웠어요. 그분이 가셨으니 북한과 같은, 한반도와 같은 전 세계에서 넓혀보면 그 어두운 곳에 누가 사랑을 주고 빛을 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 '이야, 우리 어머니 최고구나! 대단하시구나!' 문선명 선생님의 뜻, 계승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현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평화, 번영, 통일을 설득하고 주도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도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계 학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행사하고, 설득하고, 사랑을 주는 곳을, 특히 최근에 보기 힘듭니다.

하늘부모님성회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은 어머니가 만드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미래가 밝고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또 건강하셔야 정말 북한과 같은 그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비칠 것입니다. '사랑으로'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어머니를 따라 갑시다. 고맙습니다. ㄸ

#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수만  
KCLC 공동의장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평화의 축제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에 미국에서 세계기독교성직자협의회 WCLC 창설 후 이스트가든에서 한 총재님께서 한국 목사를 초청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총재”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부르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발간이 된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통해서, 이 말씀에 새롭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왜 ‘평화의 어머니’이신가를 요즘 펼치고 계시는 희망전진대회를 통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 KCLC 의장으로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신통일한국의 완성에 기독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미국에서 리버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저명한 방송설교가 이시며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제리 폴웰 목사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싱크탱크 2022 제6차 희망전진대회 때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KCLC의장으로서 그분의 아들 조나단 폴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제게는 또 다른 감회였고 감동이었습니다.

인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의 한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반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이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열강의 이념적인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두 동강이 난 것도 크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이 인류의 고통, 세계의 고통에 동



참하게 하셔서 세계평화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모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시 모으시는 통일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신통일한국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힘써 왔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께서서는 지금까지 평생을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매진해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든 하루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한 달하기 좀 더 어렵고 일 년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평생 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단에 서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호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진지함과 뜨



제2회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 '당신은 기쁨입니다'가 거행된 천정궁과 천원교회 대성전 행사 전경. 참석한 사람들이 참여머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거운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일을 행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인류의 평화에 대한 열정이 그리 뜨겁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은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인류 평화를 향한 하나님께 받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하나님께 받은 화평의 사명을 가지고 평화를 사랑하며 인류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평화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의 KCLC는 미국의 ACLC, 세계의 WCLC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평화의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전에 UPF 문연아 회장님, 이현영 회장님, 홍운종 사무총장님과 함께 평화의 어머니에 대해서 담화하던 중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송(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을 불러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 종단지도자들의 효정 증거



노엘 존스 주교

평화의 어머니 되시는 한학자 참어머님, 참어머님의 사랑과 믿음, 리더십과 희생 덕분에 전 세계종교지도자는 물론 지역사회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부모님께 기쁨을 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평화의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어머님께서 늘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류에게 축복을 베풀어 종단 지도자는 물론 세계만민을 품고 하늘부모님께 기쁨을 돌려 들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임보니 우지 레췬 하데베 선지자

사랑하는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님, 하늘부모님께 기쁨의 초석이 될 금번 평화축제 개최를 경하 드립니다. 온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음필라칼로는 인류의 하늘부모이십니다. 아프리카 영성에서는 음필라칼로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늘부모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생, 공영, 공의 세계를 만들어 창조주 음필라칼로의 자녀로서 하늘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

한학자 참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평화축제를 개최해 주신 참어머님께 경의를 표하며 한국과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모든 귀빈께 축하를 드립니다. 남북한 통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밝히신 참어머님께서 종교 화합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인간의 화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도, 권능이 늘 함께하여 만세소리가 끊이지 않길 기원합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 생활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모하마드 누루**

영국 시아파 회교연맹 이사장



**판딧 반두 포크렐**

네팔 힌두교 사무총장



**헤수스 마누엘 퀴로즈**

남미 성공회 주교

선지자 마호메트는 인류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한 진리 같지만 인류를 섬기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인간이 필요합니다. 불가분의 인연입니다. 또한 인류는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위할 때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ㄹ

존경하는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님께 서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독생녀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천비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학자 참어머님, 참어머님은 평화의 화신체요, 우주의 어머니요 평화의 어머니이십니다. 힌두교에서 참된 부부는 시바와 파르바티 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참어머님과 참아버님께서서는 삶과 가르침을 통해 참부모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ㄹ

이번 기회를 삼아 참어머님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부모님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3가지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라. 둘째,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셋째,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특히 참어머님께서 실천하며 가르쳐 주셨듯이 원망 없는 위하는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라. 아멘. ㄹ



**도봉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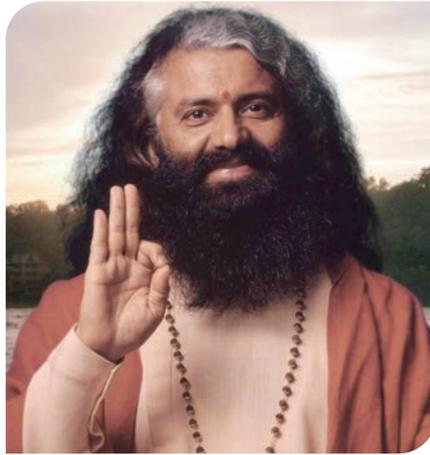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우봉선원 주지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그 위대한 흐름을 주도하고 계신 한학자 총재님께서서는 이제 인류의 참부모님이시요, 평화의 어머니로서 인류평화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영원히 시길 발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ㄹ



**히가시 와코**  
천대종 청행암 주지사



**푸자 스와 사라스와티지**  
인도 니케탄 아슈람 힌도교연합 총재



**모하마드 아부 자이드 사일람**  
회교 대법원장

한학자 총재께서는 오늘날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하늘부모님에 대한 헌신과 실천을 하나로 합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갈래갈래 나눠져서 뻗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작은 빛도 사실은 하나의 큰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작은 촛불로 빛을 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학자 총재님께서 계시는 곳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ㄸ

힌두교에서는 '세계는 한 가족'을 뜻하는 '바슈다이바 쿠티바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바꾸게 되면 하늘아버지와 하늘어머니, 하늘부모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참된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류는 인간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지구와 삼라만상을 아끼고 섬기고 보호해야 됩니다. ㄸ

저는 늘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이 모든 활동 덕분에 저희는 항구적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활동은 한학자 참여머님의 지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머님은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참된 평화의 화신체입니다. 세계 만민이 한학자 참여머님의 모범과 발자취를 따라 평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당부드립니다. ㄸ



한국불교 태고종 청련사·화담정사 연합합창단이 “연꽃 피어오르리”와 “아침 서곡”를 불렀다.

# 세상에 참된 기쁨을 전하는 삶

야마시타 루미꼬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살고 있는 ‘야마시타 루미꼬’라고 합니다. 제2회 평화축제,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걸어온 삶의 일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1997년 11월 참부모 되시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 주례로 거행된 4천만쌍 국제합동축복결혼을 받고, 3년 후인 2000년 2월 한국에 왔습니다. 무척 추웠던 그 겨울날로부터 벌써 2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저는 저의 남편 윤태영 씨와 의젓하게 자란 21살, 20살 된 두 아들,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이렇게 3대가 한 지붕아래, 한 햇살을 받으며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집 외양간에는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인 서른다섯 마리의 소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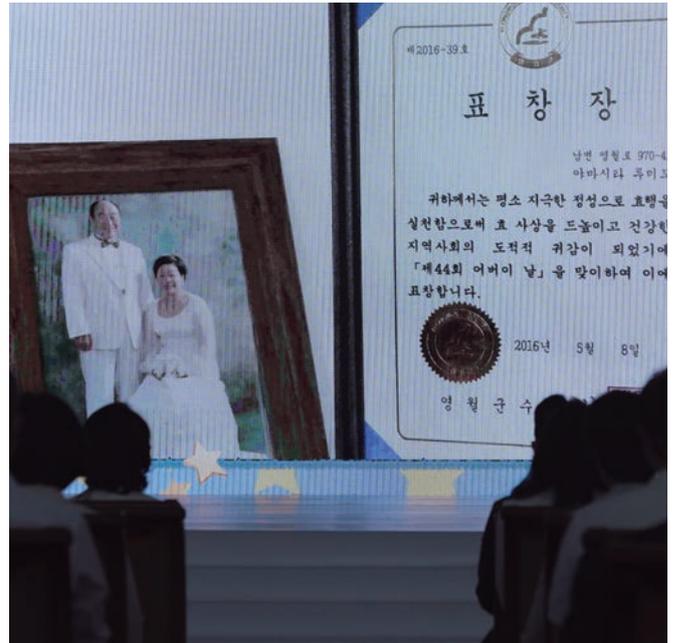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는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시부모님의 부모님도 계셔서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은행에 다니며 부모님과 4남매, 여섯 식구로 살았던 저로서는 4대라는 대가족의 그 규모와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저는 그 사랑과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아무 것도 먹지 못하자, 시부모님의 아버지 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직접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 건빵을 사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외국인 손주며느리가 한국생활, 시집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 하시며 재미난 이야기를 자주 들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저는 깊은 감사함으로 추억을 더듬게 되는데요, 시집 온 지 4년째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는 홀연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께서 갑자기 시력을 잃어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무릎도 좋지 않게 되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 더해 치매까지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제 첫 번째 일은 대소변으로 엉망이 된 할머니의 방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치매에는 장사 없다’고 시어머니도 할머니 때문에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할머니는 3년을 편안히 지내시다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가족의 사랑’과 ‘참된 기쁨’을 마음의 주제로 새기며 좀 더 깊이 신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식구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효도상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가정생활과 인격을 기리는 수상을 했다.



교회 식구들이 받은 대한민국 정부 표창장은 자연스럽게 참부모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2009년 참부모님께서 주관하신 40일 여수 해양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주제로 삼은 '삶의 기쁨'에 대해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5년간 저는 영월교회 선교사회 리더를 맡았고, 지금은 제직회 회장을 하면서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어머니 추천으로 영월군청에서 효부상을 받았고, 노인회장님 추천으로 영월 향교에서도 효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효부상을 받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말도 여전히 서툴고 많은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가정을 넘어 이웃과 사회의 인정을 받아, 일본으로부터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저는 백번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된 평화세계, 기쁨 가득한 신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참부모님 앞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더욱 많은 노력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1년은 정말 많은 사연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복가

정의 이름으로 가정과 이웃, 사회에 참된 기쁨을 전하기 위해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의 길을 걸었고, 엄마가 걸어온 그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2세 아들들을 의젓한 청년으로 키워 내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정예배를 보며 우리 부부가 세상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늘 다짐합니다. 강원도 영월의 더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백 마디 말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통해 축복결혼의 가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저의 시부모님을 모실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을 사모하듯 남편을 더 깊이 사랑할 것이며, 두 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가 되고, 저희 부부처럼 아름다운 축복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참부모님의 축복 받은 축복가정으로서 작은 기쁨 일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부모님께 영광의 기쁨을 올리며 이상으로 저의 효정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ㄸ



리엔젤스와 한국,유명 소리꾼 유태평양이 관객을 즐겁게 했다.

# 효정담회

윤영호 세계본부장

이렇게 뵈러 내려온 것은 부흥회도 하고 세계본부의 전략을 공유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 어머니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뵈어왔던 그 모습을 진솔하게 증거하는 것이 효자 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고 오늘 ‘효정담회’라는 이름으로 식구들을 만나 저도 부흥되고, 부활되고 정말 식구님들을 존경하고 또 어머니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섭리의 목표를 놓고 전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 되고 화합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효정이야말로 우리의 섭리적 목표의 범주를 넘어선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 어머니의 심정과 사정을 인생과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지도자들과 효정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애원은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알게 하는 자각 단계입니다. 식구는 내가 하늘부모님의 자녀라고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축복가정은 내가 하늘부모님의 가정이라고, 천보는 내가 하늘부모님의 보배라고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식구는 개성완성, 축복가정은 가정완성, 천보는 주관성 완성으로 수행의 로드맵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 저를 교육해 주시며 신앙은 가야만 하는 교회, 가야만 하는 성회가 아닌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성회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천일국 안착 이후의 교회문화에 대해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문화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문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매주 예배를 주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관은 이성적인 주관이 아닌 어머님 스스로가 기쁘고 즐거워 주고 또 주고 싶은 참사랑에 기반한 그리고 내 자녀들을 또 만나고 싶은 감성적 주관을 기초로 하고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목회자를 중심한 100일 특별 노정을 출발시켜 주시고 목회자들의 삶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시며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셨던 참된 모성애를 어머니를 모시며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천일국 안착의 축복 속에 천보교육원을 출발시켜 3대 축복을 완성하는 수행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금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주시며 과거의 생존을 위한 개혁의 길이 아닌 심정 훈련, 사랑의 훈련을 통해 제도권 속에서 식구들을 가꿔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늘부모님 성회의 식구들은 참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신앙을 시작하였고 참부모가 되어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지인참부모를 믿고 종족과 국가의 참부모가 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싱크탱크 2022가 끝나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눈물이 맺히셔 가지고 "고맙다." 식구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본부나 스태프들에게 "고맙다" "참 고맙다." 제가 그 자리에서 펴평 울었습니다. 지난 어머니 노정이 보였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어머니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나오신 후 제가 어머니께 여쭙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셔요?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잠 못 주무시고 하루에 8번 깨세요. 왜 이렇게 사셔야 됩니까?"

라고 여쭙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엄마잖아." 식구님들 자식들 키우실 때 옥이야 금이야 쓰다듬으면서 길렀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가슴에 대못 박을 때 그 대못을 박는 행위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부족하지만 자녀가 되어 참어머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길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니다. 어머니가 가시는데 제가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오신 7년 노정 아닙니까. 입이 헐고 다리가 붓고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식구님들 남아공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거행되었던 축복식 기억하실 겁니다. FNB 경기장에서 내려오셔서 축복식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전기를 블랙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140개의 계단을, 그런데 그 한 계단 한 계단이 7년 노정 같기도 했고 7년 노정의 하루하루 같기도 했고, 육천년의 하루하루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복귀의 조건을 만드신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을 아버님답게 우리 통일가를 통일가답게 우리 심정공동체를 심정공동체답게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니. 어머니가 해 나오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체휼하는 것이, 저희가 진정 어머니를 가슴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통일한국을 가슴으로 이루고 통일세계를 가슴으로 이룬다면 저는 그 조직에 반드시 하늘이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성체가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가야만 했고, 나는 보여주어야만 했고, 나는 기적을 만들어야만 했다." 망망대해 돛단배에 홀로 떠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나는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과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게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듭짓고 새날을 맞고 이번에 싱크탱크 2022 행사가 끝났을 때 그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그 7년 노정이 아니 일생의 그 노정이 제가 잘 모르지만 느껴져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씀은 "고맙다, 참 고맙다!"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이 천보이고 너희들이 천보로서 걸어가는 길이 하늘부모님이 처음 만드신 길이다. 내가 너희를 믿겠다!" 그것이 지금 천보가정교회 섭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부모님 특별히 참어머님 믿고 하나 되어 나아가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서로 박수도 치고 파이팅 하면서 기러기가 날아가서 몇 천 키로 횡단하듯이 우리 같이 참부모님의 대역자 대사자 대신자가 되어 목표를 향해 승리의 그 길에 같이 발 맞춰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저명한 지도자들의 연설을 통한 세계평화정상연합의 가치

## 2019, 2020년 월드서밋 ISCP 총회 연설 발췌문

세계평화정상연합(ISCP, The International Summit Council for Peace)은 항구적 평화 세계 실현과 공존 그리고 상호의 길을 향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전 현직 국가 정상들이 모여 2019년 2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천주평화연합의 창시자이신 참여머님을 중심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일찍이 참부모님께서서는 세계의 문제점과 세계평화를 위한 방법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1987년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 의회(the Summit Council for World Peace)’라는 기구를 창설하시어 ‘세계평화정상연합’의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세계평화정상연합은 전 세계의 전 현직 국가정상들이 모여 어젠다(agenda)를 논의하고 뜻을 모으는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국제사회의 각종 난문제-불평등, 가난, 전쟁과 테러, 안보 등을 해결하며 인류의 행복과 항구적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종교 학계 시민사회 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연대하여 세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학제 간 및 다분야 대화를 전개하고 있으며 영적 가치, 윤리적 원칙, 팀워크, 책임 있는 리더십 및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연합과 함께 하고 있는 저명한 지도자들의 연설을 통해 세계평화정상연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세계평화정상연합의 가치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 다테 추이치, 일본 참의원 의장(2016~2019)

세계평화정상연합은 문선명 총재님과 그의 아내인 한학자 총재님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세계평화를 위해 온 평생을 희생해오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선명 총재님의 탄생 100주년 및 한학자 총재님의 탄생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두 분은 상호 의존, 상호변영, 보편적 가치의 이념을 촉진시켜오셨으며 현재 그들의 이념의 영감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학자 총재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총재님은 배우자의 결단을 되새기며 작년에 홀로 지구 네 바퀴를 돌며 세계평화 프로젝트를 위해 대단히 노력해오셨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 분이 세계평화를 창





조하는 “참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로 칭송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 위원회 위원장(2004~2014),  
포르투갈 수상(2002~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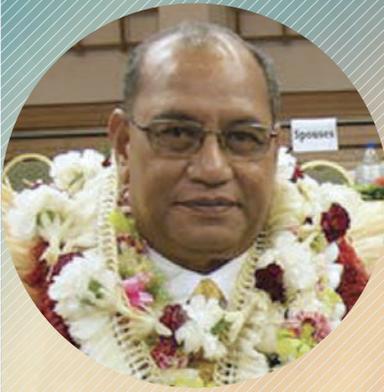


먼저 UPF와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 한국에 초대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2012년 유럽연합을 대신하여 노벨평화상의 명예와 특전을 받았고, 수상소감에서 위대한 네덜란드와 유럽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다. 평화는 미덕과 마음의 상태이며 곧 자비, 확신, 정의를 향한 기질이다.”라는 명언을 인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지역이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수단을 통해 그 목표를 추구해야 하지만 나는 또한 문화적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접촉과 같은 미덕, 조화 그리고 정의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했던 영감이기도 합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2016~2020)**



희망은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신념은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용기는 그 일을 해냅니다. UPF 2020년 월드서밋에서 상호의존, 상호번영, 보편적 가치와 함께 평화 건설에 대하여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5대륙 170여 개국의 리더들과 함께 이 월드서밋의 참석자로 초대해 준 천주평화연합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제 아내인 패트리샤 마로퀸 드 모렐스와 함께 과테말라를 여행했고,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만약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면 미래세대에 더 나은 세계를 상속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 총재님, UPF의 리더로서 본보기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크리스토퍼 로악, 마셜제도 대통령(2012~2016)

마셜제도의 국민들과 행정 지도자, 데이비드 카부아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여머님과 UPF, 하나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을 위해 지지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협력 파트너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참석자로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문 목사님의 평화의 메시지와 업적, 그리고 그 유산을 지켜 온 한학자 총재님의 노고 덕분입니다. 당신의 세계평화와 안보의 메시지는 답을 못하거나 간과된 것이 아닙니다. 마셜제도는 전쟁과 핵무기 중지를 위한 외침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시오네 부나 파오투시아, 통가 부총리(2019.10~2020.2)

천주평화연합은 모든 인간의 정체성, 경험과 방향성의 정신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화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적, 민족, 인종, 문화, 세계관이 상호 존중되며 조화로운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계는 공동 창립자이신 문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 세계, 즉 하나님 아래 한 가족입니다. 이런 사회로 가는 길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본보기로 가르치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수상(2006~2015)

저는 이 단체가 평화와 종교 간의 이해,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작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금년 한 해 이 곳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올해가 천주평화연합의 중대한 한 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 설립자이신 문 선명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학자 총재님의 리더십 아래, 이전보다 더 중대하고 야심찬 프로그램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이 이끄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은 종교와 국가 간의 화해를 이뤄왔으며, 특히 북한과 남한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 샘더취 아카 모하 세나 파데이 테호 훈 센, 캄보디아 수상(1993~)

오늘 월드서밋 총회와 세계평화정상인연합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천주평화연합, 저를 비롯한 캄보디아 대표단에 대한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월드서밋은 정부와 민간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보기 드문 기회가 제공된 중요한 포럼인데,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및 글로벌 상황의 개발과 세계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토의하고 관점을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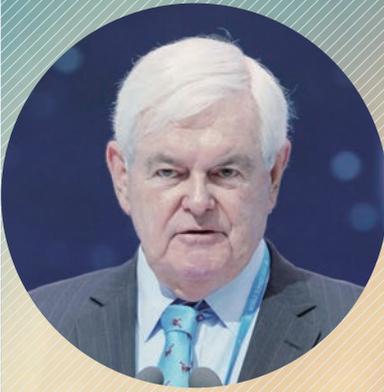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이번 포럼의 테마인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발전”은 현재 세계 사람들의 평화, 경제 성장, 번영과 조화를 위협하는 광범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적절하고 중요합니다.



### 헨리 반 티오, 미얀마 부통령(2016.2.1~2021)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발전을 위한 이번 서밋을 주최한 천주평화연합에 감사를 표합니다. UPF는 다양한 그룹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공존과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NGO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우리의 노력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호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젊은이들이 국가발전을 위한 거대한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모든 단계의 질 좋은 교육을 제공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정부, 시민단체, 학술단체, 국제기구, 학부모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현 시대에 공헌할 필요가 있습니다.





### 뉴트 킵리치, 미국 국회의원(1979~1999), 미국 하원의원(1995~1999)

저는 오늘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통틀어 말하려고 합니다. 문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가 문 총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꺼이 시간을 가지려는 의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의 참상 속에서 문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그들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꿈꾸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창조해 낸 것은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그들의 용기로부터 용기를 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대륙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들의 비전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전 인류를 괴롭히는 참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주영,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부의장(2018.7~2020.5) 5선 국회의원(2000~2020)

오늘 100여 개국에서 오신 150여명의 지도자, 500명의 국회의원과 정치, 경제, 종교, 언론, 학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 6천명이 포함된 저명한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의 공동창립자 한학자 총재님과 세계일보 정희택 사장님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이 정상회담을 주최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작년, 단 일 년 만에 국가와 대륙 통틀어 9차례 서밋이 개최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계평화에 대한 헌신이 이번 서밋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 반기문, THINK TANK 2022 회장, UN사무총장(2007~2016)

영속적인 평화와 안보는 인류의 가장 큰 바람이자 UN의 중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쟁, 민족주의, 단독주의, 지정학적 긴장, 테러, 민족과 종교 분쟁의 결과로 영속적인 평화는 세계 곳곳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기의 스펙트럼 중, 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러한 숙고의 초점이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서밋을 주최하신 한학자 총재님께 특별히 감사를 표하며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총재님을 격려합니다.



### 브리지 라피니, 니제르 수상(2011~2021)

여러분 모두 사하라 지역에 대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니제르의 사하라 지역에서는 파괴적인 시민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평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길 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이 아닌, 기도와 행동을 통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계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임무이며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세계 평화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결과들을 학수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중요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문선명 목사의 탄생 100주년과 한학자 총재님의 탄생 7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축복가정에서 천보가정으로

길영환 천보교육원장

**Q** 천보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430가정 축복완료, 43가정 실세화의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30가정 축복완료는 축복식에 참여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교회에 입문한 것을 말합니다. 축복완료한 430가정 중에 43가정을 식구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A**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한국에서는 이것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본부는 선의 편에 있는 우호적인 사람들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평화애원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식구가 아닌 평화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평화애원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축제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평화예배에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수련을 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평화축제>평화예배>평화수련)을 마치면 43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합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나마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430가정 축복완료한 사람들 중에서 43가정을 뽑아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목회

를 하고 있거나 심지어 남아있지 않거나 혹은 내가 생활하는 지역에는 없어요. 그들은 먼 지역에서 지내고 있기에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주변과 지역사회 지도자들, 평화대사들을 평화축제와 수련과정을 통해서 43가정을 만들어 가면 현장화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평화축제에 초청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애원이 되게 하고, 그들이 식구가 되게 하고, 식구가 되면 축복에 대해 소개하고 축복가정이 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그들이 천보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열린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전에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UPF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쉬운 일이며 그곳에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가깝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들은 이미 우리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기도 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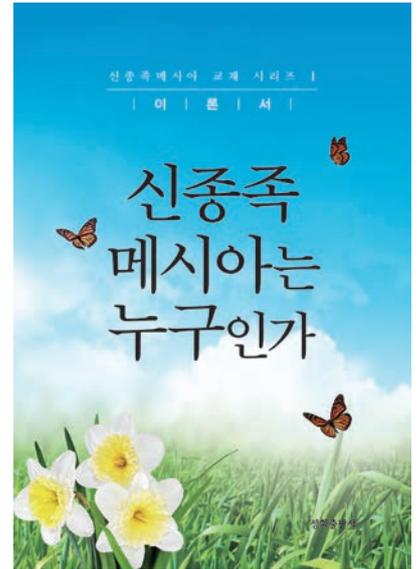
다. 그들은 서로서로 더 쉽게 연결될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은 식구들이 그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Q** 이 과정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A** 절대적으로 독생녀이신 참어머님의 뜻과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런 축복가정들이 성공하는 경우를 전 세계를 통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식구들이 참어머님의 뜻을 따르다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세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가정들이 참어머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분명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적으로는 해방 받고 축복받은 영계의 선조상들의 협조가 놀랍습니다. 이제 참어머님께서 천심원을 하사해주셨기에 천심원 기도와 더불어 영계협조는 더욱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태도와 항상 참어머님과 본심으로 대화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행복하고 기쁜 맘으



길영환 원장과 참평화매거진 편집장의 인터뷰하는 모습



천보교육원에서 개발한 천보리더스쿨(CLS) 2 교재

로 이 과정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리하지 못한 축복 가정들에 대한 애정의 마음자세와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성취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43가정 실세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아껴주고 대화하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머님께서 ‘천심천보수행’을 통해서 43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천보가 된 축복가정들은 하늘의 보배로서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맘으로 함께 천보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3대 축복을 완성한 사람이 천보가 돼야 되잖아요. 천보가정은 기본적으로 개성을 완성해야 해요. 나는 이것을 ‘신 자기(heavenly self)’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신 가정(heavenly family)’과 ‘신 종족(heavenly tribe)’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신 자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정에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해방되길 바라며 43가정을 해

내기 위해 축복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가정을 이루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훌륭한 축복가정을 이루어 천보가정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천심천보수행론”이라는 책이 곧 나올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우산아래 모든 식구들의 천심을 통해 천보가 되고 이것을 위해 참여머님께서 천심원과 천보교육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가정들이 진정으로 이 과정을 거치기를 바라며 천보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외적인 실적 완료에만 도달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해서는 안 됩니다.

**Q 식구들에게서 그런 변화를 본 적이 있나요?**

**A** 그럼요! 저는 많이 보고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여머님께서 실천해 오신 놀라운 기적을 믿었기에 성공도 하고 생활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참여머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43가정을 완료한 많은 식구들과 가난하고 어려운 식구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들은 서로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도움을 받

기도 하고 43가정을 완료하기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이러한 식구들의 심정의 변화는 목사님들을 깊이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여머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참여머님께 보고할 때 참여머님께서는 “목사님들의 보고는 별들의 축제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참여머님의 말씀에 긴장하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참여머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리치지 않으시고 끌어내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참여머님은 목회자들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변화합니다. 그들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임지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교회에서 식구들은 변화된 목사님을 보며 식구들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육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성은 무엇입니까?**

**A** 천보교육은 두 방법의 천보리더스쿨(CLS)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천보리더스쿨은 사이버 리더 스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때 사이버 리더 스쿨을 사용하는데 한국어, 일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세계적으로 각 대륙이나 지역적으로 줌을 통해서 만납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리더스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보리더스쿨의 커리큘럼은 천보리더스쿨 1, 2, 3의 세 가지로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천보리더스쿨1(CLS 1)에서는 기본 교육을 설명하고 있는데 식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리강론의 기본적인 과정과 참부모님 생애노정, 하늘부모님 성화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것은 기초교육입니다. 아마도 각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에 그들이 식구가 되고 축복가정이 되고 나아가서는 신종메(신종족메시아)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과정을 CLS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 우리는 각자들이 세 사람을 찾아 삼위기대를 만들고 그 3명을 통해서 홈그룹이란 보고회 조직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하나의 건강한 홈그룹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홈그룹을 번식할 수 있는지 교육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온전한 홈그룹이 되면 자연스럽게 43가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CLS 2의 과제입니다.

CLS 3는 무엇을 다루느냐? 축복가정에서 천보가정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이미 축복가정이 되었고 그들의 삼위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430가정을 찾고 천보가정에 필요로 하는

천보 리더십 능력을 사용하여 축복가정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리더십은 천보 코칭 리더십입니다. 코칭이란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대화를 대상과 나누고 그 대상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는 것을 돕는 리더십입니다. 천보코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코칭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들 통해서 스스로를 비우고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천보리더스쿨 3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종족메시아와 천보가정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과정을 이수하고 신종메와 천보입적 그리고 천보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지 않습니다. 일본 스타일은 한국과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문화와 사회현장이 다 다르므로 인해서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성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합니다.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의견을 제안합니다. 한국에서는 188명의 43가정 실세화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코칭 인터뷰를 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씩 온전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입니다. 천보교육원은 지금 43실세화 성공 모범 사례연구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일본, 미

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사례 연구를 한 후에 또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Q** 사이버 스쿨에서 원장님은 이곳에서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가르치는 건가요?

**A** 사이버 스쿨에는 진행담당자 코디네이터와 통역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핵심 메인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플립러닝(flip-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플립러닝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주체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 대신에 먼저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고 그것을 연구하게 합니다. 즉 학생들은 먼저 스스로 나와 함께 공유할 교육 자료를 예습합니다.

그 후에 나와 함께하는 메인 수업에서 예습한 자료를 가지고 줌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학생들을 내가 제안한 주제에 대해 발표도 하고 질문하고 공유를 합니다. 나는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들에게 핵심 되는 주제를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합니다.

메인 수업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학생들은 보고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줌 수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코치만 할 뿐입니다. **7**

이 인터뷰는 2021년 7월8일 한국, 길영한 천보교육원장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하늘부모님성회 신한국특별대륙 5개 지구 평화축제





## 신경인국 평화축제 환영사

주진태 신한국가정연합 제1지구 회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부모님성회 신경인국 평화축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는 하늘부모님성회 신한국가정연합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주진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천운천복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귀한 축제의 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축제시간이기 때문에 환영사를 시적언어와 또 시 낭송의 형식을 빌려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근원 하늘부모님 / 축복을 주시는 참부모님  
축복받은 우리 / 축복받을 평화애원 / 그리고 환호하는 만물들이여!

오늘은 축복의, 축복에 의한, 축복을 위한 / 한 마당 평화축제가 펼쳐지는 날!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 시조 아담 이브는 /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자지간의 관계성이 끊어져 / 천애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젖몸살 통통부어 / 울부짖는 어미로 살아오신 하늘어머니!

안아주고 싶어도 안기지 않는 / 비정한 자녀를 바라보며 / 덧없는 세월의 무상함만 쌓이누나

속히 이 땅에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하여 / 어린양찬치만 오매불망 기다려 온  
하늘과 땅과 인간들이여!

당대에 복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 태산준령을 넘고 넘어  
천로역정의 길을 걸어오신 평화의 어머니 / 실체성신을 보라!

오늘의 평화축제는 / 하늘엔 영광이요 / 땅엔 축복이요  
만민에겐 환희로 / 감사 감동 감격의 열매 맺게 하소서!

축복의 근원 하늘부모님 / 축복을 주시는 참부모님  
축복받는 평화애원의 기쁨이 / 사랑으로 행복으로 결단으로 / 꽃피게 하소서...

오늘 평화축제를 통해서 하늘부모님은 누구신가,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참어머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회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놀라운 깜짝 놀랄 메시지가 당도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기적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로 불리는 하늘부모님의 독생녀 실체성신 참어머님께서 오늘 신경인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레와 같은 성대한 박수로 우리 참어머님을 큰 박수로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자애로우신 눈빛으로 무언의 말씀으로 오늘 신경인국 평화축제를 축복해주신 우리 천지인 참어머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 신경원국 평화축제 환영사

황보국 신한국가정연합 제2지구 회장



방금 소개 받은 가정연합 공동회장 황보국입니다. 오늘 평화축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사 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님과 양경애 의원님, 민경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KCLC 목사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피스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가정연합 식구님, 평화대사님, 초중지도자님 그리고 평화애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 시간 본 연합의 창설자 되시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참여머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안보의 상식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할 가치는 평화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의 세계를 염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지금도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세계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평화의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룰 때 성취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평화축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한 부모아래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이 자리는 종교의 벽·인종의 벽·문화의 벽·사상의 벽을 허물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의 세상의 만드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가 깁니다. 그러나 평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5:9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께서는 일생을 평화세계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한학자 어머니께서는 수차례 지구성 곳곳을 순회하시면서 평화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구성 곳곳마다 양위분의 평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평화세계의 모델로서 하나님아래 인류대가족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불굴의 실천력으로 수많은 평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셨습니다.

오늘 평화축제를 통하여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하늘부모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ㄹ



제2지구 신경원국의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의 한 장면

## 신총청국 평화축제 환영사

유경득 신한국가정연합 제3지구 회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대전충청지역에 사는 많은 선교사, 축복가정들이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보급, 신통일한국, 산수원 애국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UPF, 심지어 YSP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 활동을 통하여 인연된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평화축제의 한마당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했던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는 분들을 위하여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충청지역과 신한국 및 신일본 등 전 세계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시청하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애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평화축제를 기획하여 참사랑을 널리 확산시켜 주신 효정천원 천정궁에서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참여머님께도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가장 으뜸 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에서 그 첫째가 신(神)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둘째는 그 신과 인류와의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평화의 어머니께서는 5대양 6대주, 수백수천 킬로미터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축제가 마련된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평화축제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늘부모님이 누구이신지, 이 하늘부모님을 밝히신 독생녀 참여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며 참된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축제를 통해서 하늘부모님이 나의 참된 부모이고 나 자신은 하늘부모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그 순간 인류는 하늘부모님 아래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7월이 되면 대전충청지역에 무궁화가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무궁화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활짝 피는데 피고지고 또 피는 꽃이기에 무궁(無窮), 즉 끝이 없는 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일편단심으로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더위가 절정으로 가는 초복을 맞이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모두 어려운 시기에 무궁화 정신을 닮아 굴복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평화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평화축제를 통해서 “나 자신도 하늘의 귀한 축복이었구나”를 깨닫고 다시 출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원근각지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환영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ㄹ

‘당신은 축복입니다’를 주제로  
평화축제를 개최한 제3지구 신총청국



## 신전라국 평화축제 환영사

이상재 신한국가정연합 제4지구 회장



“하늘부모님성회 제4지구 호남제주 평화축제”에 오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애원” 그리고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평화축제는 “하늘부모님성회”의 축복가정, 식구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하늘부모님성회”를 알고 참석하신 새식구, 새로운 “평화애원”분들이 이곳 광주교회뿐만 아니라 호남제주 전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2만여 명이 비대면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화”는 모든 인류가 꿈꿔왔던 공통된 “이상”입니다. 개인의 평화, 가정의 평화, 종족의 평화, 국가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국경, 인종, 종교, 문화를 넘어 모두가 평화를 염원하지만, 불행히도 참다운 평화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참여머님께서는 그 이유를 인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모시고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형제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형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없이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일 년에도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며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오지도 상관 않고,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고 구석진 곳들을 미친 듯이 다니며,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알고 모시게 하기 위해 일생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러한 총재님의 삶에 감화되어 국가의 정상들, 종단의 수장들은 국가와 종단의 벽을 넘어 총재님을 “평화의 어머니”로 부르며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평화축제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께서 열어주신 축제와 축복의 장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실 총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327페이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부모를 잃어버린 인류가 6천 년 만에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런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평화축제를 통해 “하늘부모님성회” 깃발 아래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모심으로 모든 천복을 받는 평화애원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평화축제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기쁨”, “감사”, “행복”, “결단”을 주제로 총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6천년 동안 잃어버린 본연의 부모를 만나 참된 나를 찾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환영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지구 신전라국의  
하늘부모님성회 평화축제의 모습



## 신경상국 평화예배 말씀

박영배 신한국가정연합 제5지구 회장

평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연합의 핵심말씀을 평화예배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일원리 말씀은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원리강론은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신의 실존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원리말씀을 깨달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과의 ‘참 만남’입니다.

원리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과 타락의 슬픔과 구원섭리의 비통한 심정을 생생하게 밝혀 줍니다. 여러분은 원리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원리말씀은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열어 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나와 메추리가 되고, 등불이 될 것입니다. 통일원리는 수십 성상을 두고 창망한 무형세계를 헤매면서 밝혀낸 진리입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이 진리를 피어린 고난의 길을 걸으며 밝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창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까닭을 알면 우리의 존재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목적은 곧 존재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이 땅에 있게 한 원인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형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을 통하여 작가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 가만히 계시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창세기 1:26)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창세기 1:28)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건강과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장성하면 좋은 배필(짝)을 만나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남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잘 살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자식을 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 한결같은 인간 부모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하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육하고’라는 말씀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 앞에 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생육하고’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곧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대상(짝)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 몸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창조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하신 축복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말씀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땅에 충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의 길을 가라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 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자식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을 사랑하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종족과 민족, 나라, 세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담·해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만물이 감사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만물을 주관하라.’는 주관권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을 통하여 나를 낳아 길러 주신 내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만물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창세기 1:28)고 하신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의 말씀을 ‘삼대축복(三大祝福)’이라고 합니다. 이 삼대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개체 속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본심(本心)과 사심(邪心)이 있고, 사심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성품을 가진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본래의 모습인 한 성품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심이 원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의 마음인 사심을 가지게 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하나의 성품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하여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 인류는 확연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통일원리는 인간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그 불행의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별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가린 것은 하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가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아담과 해와를 떠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게 하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창세기 2:17)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결심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유혹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간음이었습니니다. 성경의 story는 인간의 타락이 간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륜한 사랑이 개인의 인격은 물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동산을 파괴한 것은 불륜한 사랑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요한복음 8:44)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음란한 마음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음란이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란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죄의 정욕을 그대

로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불의한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불의한 욕망에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이진리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죄악세계는 인간이 서러워하는 세계이며, 하나님도 서러워하시는 세계입니다(창세기 6:6).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고통과 슬픔의 세계가 된 이 세계를 기필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유대백성의 불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代贖)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태복음 23:37)”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처음 오셔서 이루지 못하였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거하시며, 다시는 눈물의 기도가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입니다. 하늘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어 신부인 독생녀를 만나 어린양 혼인잔치를 통해 참부모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 말씀을 선포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통일원리 말씀은 인간의 존재원리 존재목적을 깨우치게 하는 새진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평화예배에서 큰 깨우침이 가슴으로 다가오길 축원 드립니다. 평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늘부모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마7:7-9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는 열릴 것이다.” 

제5지구 신경상국은 평화축제 대신 '희망전진 평화예배'로 진행되었다.



#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 할머니와 부부, 자녀 9명

임재식, 조혜경 가정

안녕하세요.

1992년도 3만쌍 축복을 받고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9남매 아빠 임재식입니다. 엄마 조혜경입니다. 첫째 딸 임원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빠:** 저는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저희 형님이 먼저 교회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형님의 권유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생각이 없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형님하고 저하고 형제로 자라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신뢰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형님이 권유하신다면 절대 믿고 해야겠다고 해서 그때 나이가 24살 군대 제대하고 어린 나이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같은 경우는 축복 받자마자 가정출발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복 받는다’ 그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늘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살았어요. 어머님께서 정말 진짜 자녀들한테도 정말 헌신적이세요. 봉숭아꽃이 피어나면 그 애기들 손에 다 잠들고 있어도 그 애기들 손에다가 봉숭아 다해가지고 실로 돌돌 말아서 애들이 고물고물해도 다 해주세요. 과일도 제일 좋은 것 다 잘라서 앞 접시에 준비를 해놓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목욕부터 먹는 것, 입히는 것, 자는 것 저는 애기만 낳았지 거의 어머니가 다 키워주셨어요.

한번은 제가 어머님께 여쭙어요. “어머님 저 칭찬 하나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칭찬할 게 무엇이 있냐?”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는 있겠죠. 하나

만이라도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제가 계속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너 애기 아홉 낳은 것 그거는 잘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날 엄청 울었어요. 몇 시간 울다 지쳐서 잘 정도로 너무 감사해서 그 동안에 혼나고 서러웠던 게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나더라고요.

**딸:** 일단은 형제가 많기 때문에 항상 시골벽적 해요. 그리고 가끔은 밖에 나가면 항상 머리 수를 헤아리고 있어야 되거





든요. 언제 교회 가서 집에 돌아오는데 누가 없어요. 동생이 한 명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 놓고 왔었던 거예요. 항상 엄마 아빠가 집에서 나왔을 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네가 엄마 아빠 없으면 저랑 제 남동생이랑 엄마 아빠다” 대신하고 동생끼리 싸워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보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같이 혼나줬구나. 이거를 분대장 그런 것처럼 진짜 아빠가 분명히 저한테 혼내거든요. 마음이 조마조마 열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기 전에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하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앞으로 자녀들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 그래서 키워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자라줬으면 하는 것은 일단은 축복가정 2세고, 신앙인 2세니까 일단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축복을 받고 살아온 길이 본인들이 판단할 때 비교할 때 사회하고 비교할 때 어떤 길이 우열한지 아닌지는 알겁니다. 일단은 축복을 받고 엄마 아빠와 같은 그러한 길을 행복한 삶의 가정을 이루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딸:**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가정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대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도 와 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부모님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라는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심정도 느끼게

되고, ‘정말 우리 교회 가정에 정말 이렇게 확실히 사회보다는 이혼율이 진짜 낮구나.’라고 주변을 보니까 이혼가정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거였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이 가정 안에서 정말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랑이 있다고 부부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형제 자매의 사랑도 이 가정에서 이 삶 자체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게 어디 가서 가르친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어디 가서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가정에서 좋은 삶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같이 성장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착하게 살면 끝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기만 하면, 어디서라도 항상 하늘은 함께 하시고 또, 현재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정말 참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도 어디 갈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저는 그래요. 저도 남편처럼 자녀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착하게 살고, 만약에 축복 받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가족 함께:** 당신은 축복입니다! 

# 11명의 자녀를 둔 국제가정

신승한, 마에다히로에 가정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마에다히로에입니다. 1995년에 참 부모님으로부터 국제합동축복결혼으로 남편 신승한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 다섯 명, 딸 여섯 명 총 11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 저는 셋째 딸 신기우입니다. 나이는 18살이고요, 옆에서 엄마를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남편과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께 손주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애들이 많다보니까 부부사이 좋은 것 같다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죠.

**딸:** 예전에 10만 명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효정 간증으로 나왔었는데, 부모님 부부싸움을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 【효정 간증으로 나왔던 그 당시 영상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중학교 3학년 신기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36만쌍 한일국제축복을 받으셨고, 대학교 1학년인 언니를 시작으로 마지막 세 살짜리 쌍둥이 여동생들까지 5남 6녀의 11자녀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외롭지 않고 행복한 저희 남매들이지만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실 때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이 좋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한일 양국의 평화가 저희 가정에서부터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다투시는 날엔 저희 집에서 한일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았죠.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해서 동생들을 돌봐야할 때도 많았고, 용돈도 다른 친구들과 달리 넉넉하게 주지 못했고, 간식이나 옷도 만족하게 주지 못했어요. 저도 엄마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이들이 말을 안 해도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집안일에 역할을 나눠서 불만이 많아도 자기 할 일을 잘 해왔고 엄마를 도와주기위해서 정말 착하게 살아왔던 것을 고맙고, 그 아이들이 있기에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축복식 행사가 있었을 때 참부모님께서 오래간만에 한국에 귀국하셨을 때 세계 사람들이 정성들이시는 그 운세가 한국에 있을 때 첫날밤을 가지면 어떨까하는 남편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녀 축복을 하늘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편은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이들이 못 먹고 힘들면 안 된다고 열심히 어떻게든 일하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일이었고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딸:** 일단 저만의 공간과 시간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방에 여럿이서 자는데 잠자리가 좁아서 불편한 점도 있고 성격이 서로 각각 달라서 충돌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왜 대가족에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동생들을 많이 낳으시면서 몸이 약해지시고 힘드셨을 텐데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희 가족보다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고 몸이 약해지시고 아프셔도 세계 사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참 아버님과 함께 열심히 정성들이시는 참어머님이 떠올라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과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기업, 단체, 재단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너희들이 커서 이 나라, 이 사회에 돌려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목표를 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딸:** 이렇게 대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 함께:** 당신은 축복입니다. 



# 짐 로저스,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다

참부모님의 프로젝트 및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유명한 투자자인 짐 로저스(Jim Rogers)가 2019년 9월16일 사가현 가라츠시에 방문하여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사감을 시찰했다. 본 인터뷰는 짐 로저스가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감명과 잠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Q** 어제 예쁜 따님의 사진을 소개하셨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A**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아이들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 틀렸죠. 지금은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Q** 세계일주를 두 번 하셨습니다. 다음에 자녀들과 세계일주를 한다면 언제쯤 이십니까?

**A**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도쿄에서 터널을 통해 런던까지 드라이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도 옛날의 저처럼 모험심이 왕성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터널이 완성이 되는대로 딸들과 함께 도쿄에서 런던까지 드라이브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쿄, 런던의 드라이브는 멋진 여행이 될 것입니다.

**Q** 어제 한일해저터널 조사 사감 현장을 시찰하셨습니다. 투자대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이 프로젝트는 추정하건대 채산성이 있고 수익성도 있습니다. 남에게 부채의 무거운 짐을 지울 것도 없습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스(finance)'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프로젝트 자체가 자금을 만들어 준다고 예상합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투자입니다. 한국 측도 일본 측도 큰 부채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인프라 투자에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Q** 이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그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전문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지질학자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지만 그것이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입니다.



**Q** 한일해저터널은 가장 흥분된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1세기 중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설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열리고 한국도 더욱 개방될 것입니다. 양국이 서로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Q** 한일해저터널이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 지금은 이웃 나라에 가는데 항공권을 구입하고 공항에 가야합니다. 그러나 터널이 생기면 드라이브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이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각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Q**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정체된 일본사회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A**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건설 사업은 대



짐 로저스는 2019년 9월 16일 한일 해저터널 투어에서 엔지니어, 스태프와 함께 지표면 540미터 아래의 사갱을 시찰했다.

량 고용을 창출합니다. 터널이 개통이 되면 관광, 상업을 비롯해 모든 분야를 자극할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인류의 역사에서도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영국-프랑스 간의 도버 해협을 잇는 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는 지리를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지리는 쉽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그것을 바꿀 것입니다.

**Q** 프로젝트를 실현을 시키기에는 아직 정치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사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거액의 재무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상업이나 무역 등 터널이 가져올 혜택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프랑스 양국이 해협 터널을 이었을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배워보면 좋을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무

거운 짐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먼저 한일 양국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고 이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국 국민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이 프로젝트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에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도, 한일 양국에도 명확하게 이익인데 정치인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만나서 답판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항만에 대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항만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항하는 배의 수는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터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오면 그에 응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문가의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채산성이 확보되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확실하고 원칙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한일해저터널 국제고속도로가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 일본이 더 아시아에 가까워지고 더욱더 아시아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필요한 것입니다. 38선이 열리게 되면 동북아시아가 열리고 폐쇄적이고 갈등했던 나라들이 더 개방적으로 될 것입니다. 런던 사람들이 도쿄까지 드라이브하게 되고 육로여행이 일반화 될 것입니다. 38선이 열리고 터널이 생기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개방이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들, 여행객들이 찾아옵니다. 나 같은 사람들도 찾아 올 것입니다. 

정리한 인터뷰 내용은 2019년 9월 일본에서 촬영한 짐 로저스의 영상으로 2021년 7월11일 열린 5지구 신경상국 평화예배 효정증거의 일부분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사업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신통일한국 안착 & 1017 한·일·미 희망전진대회 승리  
 오늘을 좋은 날입니다  
**환영** 신경상국 **희망전진 평화예배** **영**  
 1막 두익동일운동 2막 참가정운동 3막 한일해저터널인피르로드  
 천일국9년 천력6월2일(2021.7.11.) 오전10시 청원가정교회



하늘부모님성회 신충청국 평화 축제  
**당신은 축복입니다**  
 천일국 9년 천력 6월 2일 (양. 2021. 7. 11) 천안가정교회 대성전